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김승욱 (발행인)

이번 호는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다루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점점 더 이념 갈등이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북 정책과 통일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전통적 입장은 반공이었습니다. 6.25전쟁 기간 중 북한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이 탄압을 피해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하여 남한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기독교인들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북한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입장으로 인해 기독교 내부에서 대북정책 또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기독교적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여러 크리스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표지 인물로 미국 센서스국의 정책실장인 전영일 박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에도 통일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전영일 박사는 지난 20년간 평양과기대에서 국제연구조사방법론 등의 강의를 하면서, 평양과기대의 R&D 부총장을 마쳤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 및 한국의 통일부가 승인한 국제전략화해재단의 원장을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과학외교, 학제간 연구, 인도적인 국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분쟁해결에 대한 대안정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는 현재 북한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명이며, 미국 공무원으로서, 제 삼자의 입장에서 균형 있게 기독교인의 견해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독교신앙인으로서 북한의 변화에 헌신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채택해야 할 전략으로 스마트 파워를 주장합니다. 북핵 저지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역지력이 군사적 역량인 하드파워, 그리고 햇볕정

책과 같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조화시킨 것을 스마트 파워라고 한 조지프 나이(Joseph Samuel Nye, Jr.)의 개념을 이용한 제안을 했습니다. 전영일 박사 주장의 핵심은 보수나 진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 파워에 기초한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크리스천이 그 역할을 하자고 합니다.

또한 독일의 통일 사례를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분으로 통일교육원장을 역임한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소장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오늘날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이 동독인들을 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 이주자 선교포럼 상임이사인 박찬식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장으로부터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변화를 통해 앞으로 한국이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경험에서 나온 실질적인 건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통일에 관한 담론에서 안보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안보문제연구소의 김희상 이사장의 '국가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 자유통일이 동북아 경제에 가져올 이익은 무엇인지 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독교계가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준비하고 있는 숭실대학교의 통일지도자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전문성을 갖춘 통일 한국 시대에 사회 통합을 이루어갈 기독교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취지에 공감해서 소개를 합니다. 신학과 선교학 외에도 경제, 법, 인문학, 리더십,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석박사 과정이 열리고 있으며, 이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기업인, 방송인,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동포까지 이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 | 김승욱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사학회 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장예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